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 오늘의 전례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루카 24:13-35 참조)

절망과 슬픔에 빠져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은 온 종일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빵을 떼어 나누어주는 모습, 곧 성체성사를 통해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잘 알아뵈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함께 걸으시며 말씀을 건네십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할 때,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바로 곁에 와 계십니다.

청주교구 옥천성당 성모자상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제1독서 사도 2,14,22ㄴ-33

제2독서 1베드 1,17-21

복음 루카 24,13-35

입당송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화답송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영성체송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절망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희망

최경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 가톨릭의료원 원장

2차 대전 당시 학살의 현장인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다. 이 수용소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런 현실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인간의 품위를 포기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런 가운데 생존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박사가 전하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하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도, 젊은이도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육체의 쇠약은 누구나 똑같았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는 사람마다 달랐다. 대부분의 살아남은 사람들은 배고픔과 강제노동, 질병과 싸우면서도 자기에게도 모자라는 빵 한 조각을 더 약한 이들과 나누는 마음을 잃지 않았고, 독일군이 짐승처럼 다루고 폭행해도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 꼭 살아서 언젠가는 저 철조망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절망과 체념은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삶의 이유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 후 제자들이 겪어야 했던 절망도 마찬가지였다. 절망은 그들의 믿음을 잃게 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마저 잃어버리게 했다. 스승의 죽음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은 줄지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 다락방에 숨어 지내야했고, 스승을

배신했다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괴롭힌 것은 자신이 택한 이 길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회의감과 무서운 절망감이었다. 이런 절망은 제자들의 눈과 마음을 어둠으로 덮게 했고, 바로 옆에 계신 주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 베드로 역시 절망감에 사로잡혔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은 뒤 용기 있는 사도로 변신한다. 첫째 독서인 사도행전(2,32)에서 오순절 날에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이다.”고 담대하게 선언하신다. 이 베드로의 선언에는 바로 절망을 이기고 난 희망과 증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선하신 하느님께로 기울어지게 하지만 절망은 어둠과 악으로 기울어지게 한다. 아울러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냉담해진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살면서 겪어야 하는 많은 좌절과 실패,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라틴 말 속담에 “인간은 계획하고 하느님께서는 안배하신다.”라는 말이 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 희망을 둔다면 결코 하느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필문**



“주님,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 성월

문화홍보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자 우리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님을 특별히 공경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성모 성월을 위한 별도의 전례나 공식 기도는 없지만 본당마다 성모의 밤 행사를 열고 성모님께 기도와 화관을 봉헌하며 때로는 시나 노래를 바치기도 하는데, 이런 풍습은 13세기경에 스페인에서 처음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근래에 외국에서 온 교우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성모 성월이면 교우들이 화려하게 장식한 성모상을 모시고 시가지를 행진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주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므로 주님의 제자들인 신자들에게는 사모(師母)에 해당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모(聖母, 하느님의 어머니)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말기심으로써 성모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공경은 하느님께 바치는 흠승과는 다른 것으로, 이 공경은 성모님께서 큰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제자들의 모범이 되시고 또 우리를 앞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해 늘 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께서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이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는 것과 달리 원죄에 물들지 않고 잉태되었습니다. 이는 구세주의 모친이 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태중에서부터 특별히 보호하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구세주 예수님의 일생에 함께 하였고 십자가 수난에도 동참하심으로써 가장 충실한 제자, 제자들 중의 첫째가 되셨으며, 지상 생활을 마치신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나라에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성모님 공경과 성모성월 신심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교구의 제1주보로 모시고 있는 대구대교구 신자들에게는 특별히 소중한입니다. 초대 교구장 드망즈 주교님께서 성모님께 교구의 재정을 맡아 주시기를 청한 이래 성모님께서서는 우리 교구를 위해 많은 은혜를 얻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표지인 성모당은 이제 대구 뿐 아니라 온 나라의 성지이자 외국인들도 순례하러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고, 성모 성월인 5월에는 여러 본당과 단체들이 성모당에 모여 성모님을 공경하는 행사와 신심미사를 거행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어머니의 청을 들어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서는, 오늘도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마다하시겠습니까? **필문**



제4회 생명 주일 주교회의 담화(요약)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제정한 제4회 생명 주일입니다. 생명 주일은 한국 천주교회가 인간생명을 임신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의지와 실천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제4회 생명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 결정법(안)’의 성급한 제정 움직임 대해 우려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을 위한 우리의 관심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활동에 관한 교회의 오랜 전통적 노력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가칭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 결정법(안)’이라는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법의 골자는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들에게 생명연장에는 별로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의료비용만 소모하는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환자 본인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못 해석하거나 행사하는 경우,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환자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 자신의 생명을 위해(危害)하는 행위까지도 환자 스스로 결정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매우 중요하며 존중되어야 하지만, 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생명에 대한 책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그 대상이 확대되어 나갈 때 이 법이 자칫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으로 쉽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락사는 살인행위이며 (『의료인현장』 137항)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나서서 시행을 이끌거나 도와서는 안 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받고, 그 시기에 겪는 고통들에 대해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처지를 전적으로 환자 자신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의사와 간호사, 나아가 원목자와 사회사업가, 가족, 친지들이 함께 도움을 줄 때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의료인현장』 117항). 이를 위해 교회는 물론 정부도 앞장서서 국민들 사이에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성숙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입법을 권고하면서 명시적으로 주문한 “환자가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정부와 사회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고귀한 선물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 속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죽음이 괴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건너가는 기쁨과 설렘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도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5월 4일, 제4회 생명 주일에
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 봉 훈** 주교



욕심의 결과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 200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엔진고장으로 비상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는 낙하산이 200개가 준비 되어 있었지만 한 개는 고장이 나서 펴지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그 사실을 알고 서로 앞다투어 낙하산을 낚아채고 먼저 뛰어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낙하산은 2개 뿐. 그리고 남은 사람은 중년의 아저씨, 기장, 유치원생 모두 세 명이었습니다. 그때 눈치를 보던 중년의 아저씨가 혼자 살겠다고 하나를 짊어지고 낚아채더니 그대로 뛰어 내렸습니다. 하나의 낙하산만 남게 되자 기장이 유치원생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제 네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 내려라.”
기장은 남은 낙하산을 아이에게 주기 위해 가지러 가는데 이상하게도 낙하산이 두 개였습니다.

“어! 낙하산이 왜 두 개지?” 그러자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 내 유치원 가방 메고 뛰어 내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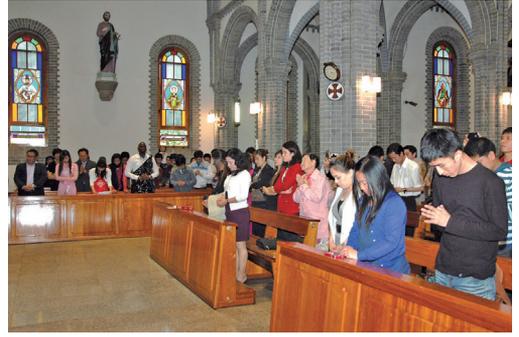
지혜롭게 행동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말씀**

금주의 성인

5월 4일	성 고데하르도(주교, 힐데스하임, 960~1038년), 성 베네리오(주교, 밀라노, 409년) 성 치리아코(주교, 순교자, 가자, 311년), 성녀 펠라지아(동정순교자, 타르수스, 300년경) 성 플로리아노(순교자, 로어흐, 304년)
5월 5일	성 마루론시오(수도원장, 두에, 634~701년), 성 사체르도스(주교, 사군토, 560년) 성 아베르티노(부제, 투르, 1189년경), 성 안젤로(신부, 순교자, 예루살렘, 1145~1220년) 성 에카(신부, 은수자, 크레이크, 767년), 성녀 유타(과부, 프로이센, 1250년) 성녀 크레센시아나(순교자, 5세기)
5월 6일	성 에보디오(베드로의 제자, 주교, 안티오키아, 67년경), 성녀 베네딕타(동정녀, 로마, 6세기)
5월 7일	성 도미시아노(주교, 위이, 560년경), 성 플라치도(수도원장, 오팅, 675년경) 성 플라비오(주교, 순교자, 니코메디아, 300년)
5월 8일	성 데시데라토(주교, 부르주, 550년경), 성 베네딕토 2세(교황, 685년) 성 보니파시오 4세(교황, 615년), 성 빅토르 마우로(군인, 순교자, 303년) 성 아카티오(백부장, 순교자, 콘스탄티노플, 303년), 성녀 이다(과부, 니벨레스, 652년)
5월 9일	성 그레고리오(주교, 오스티아, 1044년), 성 베아토(은수자, 베아텐베르크, 112년) 성 제론시오(주교, 체르비아, 501년), 성 파코미오(수도원장, 이집트, 290~346년)
5월 10일	성 가탈도(주교, 타란토, 685년), 성 고르디아노(순교자, 362년경) 성녀 블란다(순교자, 로마, 232년), 성녀 솔란지아(동정순교자, 부르주, 880년) 성 안토니노(대주교, 피렌체, 1389~1459년), 성 알피오(순교자, 렌티니, 251년) 성 에피마코(순교자, 250년경), 성 콤파갈(수도원장, 뱅거, 601년경)



■ 제4회 교구민과 함께하는 이주민 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4월 27일(일) 오후 3시 10분 계산주교좌성당에서 제4회 교구민과 함께하는 이주민 미사를 봉헌하셨다.

사진제공: 월간빛

■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방문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4월 28일(월) 오전 10시 50분 두류공원 안병근 올림픽기념 유도관 내에 설치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사진제공: 가톨릭신문

성 유스티노 신학교 사료(史料)를 수집합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말 남산동 캠퍼스 내 '성 유스티노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성 유스티노 신학교의 역사를 보존하고 전시하여 모든 순례객들에게 볼거리와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신학교와 관련된 역사자료(사진, 기록물 등 모든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대구가톨릭대학교 남산동 캠퍼스(대신학원) 053)660-5110~5112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5일(월) 11:00 성동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5월 5일(월) 11:00 죽도성당

성소 | 피정

군중후원회 일일 피정

일시: 5.12(월) 10:00~17:00

장소: 교구청 다동 강당

주제: 말씀

강사: 박성대(요한) 2대리구 주교대리신부

문의: 사무실, 256-0815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 주말

14차 MR: 5.17(토)~18(일)

320차: 6.6(금)~8(일)

장소: 한티 피정의 집

문의: 대구 ME, 983-0521

삼성산성지 5월 2박 3일 무료 대피정

기간: 5.9(금) 18:00~11(일) 15:00

문의: (010)4938-7076 / (02)874-6346

수도자의 길 체험 피정

기간: 5.10(토) 17:00~11(일) 15: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수녀원(대구)

대상: 성소를 갈망하는 미혼 여성

신청: (010)2649-2045

작은형제회 2014 성소 피정

5.10(토)~11(일): 부르심

6.7(토)~8(일): 정결, 마음의 깨끗함

7.10(목)~13(일): 수도생활체험

8.8(금)~10(일): 경남산청성심원

문의: 조수만 신부, (010)9890-8809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기간: 5.30(금)~6.1(일) 2박 3일

장소: 베네딕도영성관(사수동)

주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삶

대상: 하느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신자

문의: 한국CLC, (02)333-9898

제주 성이시들 자연 피정

기간: 6.2(월)~5(목) / 6.10(화)~13(금)

6.17(화)~20(금) / 7.15(화)~18(금)

7.27(일)~30(수) / 8.2(토)~5(화)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우쿨렐레, 통기타, POP, 초코아트, 톨페인팅, 백세건강강좌(무료) / 문의: 476-6211

2박 3일 성령 세미나

기간: 5.9(금) 13:00~11(일) 17: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

(고령 월막 피정의 집)

신청비: 13만 원(교재, 교통비 포함)

문의 및 신청: (054)954-0951

제3회 국악성가 캠프

기간: 7.11(금)~13(일)

장소: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

참가비: 18만 원(교재, 숙식 포함)

문의: (070)8875-8827

대구대교구 빛 떼제 기도

일시: 매월 둘째 토 18:00

내용: 식사, 떼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9056-9005

2014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접수기간: 5.5(월)~16(금)

문의: 850-3637(일반),

660-5512(특수), 850-3505(교육)

http://www.cu.ac.kr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과정

기간: 6.9(월)~11(수) 9:00~16:30

장소: 가톨릭대학교병원 마리아관 5층

신청: 6.2(월)까지, 3만 원(중식, 교재)

대구 505-10-129903-9 완화의료팀

문의: 완화의료팀, 650-4557, 4438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팬션예약가능

주관: 제주기사사도회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미혼모 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믹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부모님께 받은 사랑 이제 돌려드리세요!
백내장수술은 사랑의시작입니다.
의학박사
현.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중원**(소시모)
대구연세안과
☎053.626-8881~5

국가자격 장례 지도사
국비지원계좌제 및 일반반 모집
▶ 취업준비생 ▶ 퇴직준비하시는 분
▶ 창업하실분 ▶ 남녀, 나이, 학력 제한없음
* 무시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대경장례지도사교육원
(경상북도 지정 제4호)
☎ 053)813-7006

요양보호사 국비 지원
한다 교육생 한다 취업률
한다 연속합격률
▶ 요양원 · 방문요양 부설운영
사랑요양보호사교육원
대구 053)791-7677
경산 053)813-7343

길 안 건축
리모델링 전문업
옥상방수, 칠, 단열시공
판넬, 창호, 철거
☎ 053)556-6257 김기석
010-6608-6257 (다니엘)

2014 영국어학연수 & 유럽문화탐방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출발일: 07월 20일(21박 22일)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기여행 쏘렐라(유스티노)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 · 원장 정승우 (요선)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최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4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용(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시성 감사미사

일시: 5.5(월) 20:00, 성모당
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미사

일시: 5.11(일) 19:30, 성모당
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5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정: 5.11(성소 주일)
10:15(미사)~16:3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성당
대상: 1~5대리구 예비신학생
점심, 간식 제공 / 올해 성
소주일 행사는 예비신학생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6,7(토) 1주는 쉽니다.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15만 원
대상: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2014 상반기

정의평화위원회 수요일레특강

일시: 5.14(수) 19:00
장소: 1대리구청 강당
주제: 환경과 생명(흙-생명과 농업)
강사: 우희중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문의: (010)5923-3163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5.11(일) 15:00
강사: 김정선 수녀, 박재연
회비: 1만 원 / 문의: 255-4847

성요셉요양병원(구,농공가톨릭) 영성 치유

노인성질환 환우를 위한 영성치유

장효원(요셉) 신부님과 매일미사봉헌
하며 신앙을 지켜 갑니다.
문의: 615-4871 / 입원 상담

채용 | 안내

평화계곡피정의집 채용

모집: 취사원, 노무직원 각 1명
자격: 숙식가능한 60~70대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054)931-0022

제39회 교구장기테니스대회 연기 안내

5.11(일) 예정이었던 테니스대회가
무기한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추후 일정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교구법원 공시(253-9550)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경범, 전정빈(프란치스코),
이재혁, 공대헌

행사 | 모임

2014 봄날의 산책 콘서트

일시: 5.11(일) 19:00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팔공홀)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50주년 기념 행사

일시: 5.11(일) 10:00
장소: 서울 돈보스코센터 살레시오회
문의: 김인곤(베드로), (010)3819-7012

교육 | 모집

28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기간: 5.10~6.14(토, 5주간) 15:00~21: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토요일진료 전면확대

기존에 시행해오던 토요일진료를 5.10(토)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실
시하오니 신자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구평화방송 특집프로그램 안내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한 대구대교구 원로신부님들의 삶을 들여보는
‘임파라 사랑파라’를 방송합니다. (협찬: 가톨릭경제인회)
방송시간: 매주 토요일 11:05 ~ 12:00

5월 10일(토) 이종흥(그리산도) 몬시뇰	5월 17일(토) 이종흥(그리산도) 몬시뇰
5월 24일(토) 최봉도(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5월 31일(토) 최봉도(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2014. 5. 15(목) 14시~
개교100주년
기념미사 & 기념식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국내 최초 「아픈증세 상담하고
좋은의사 소개하는」
LDK 의원
원장, 병리전문 의 이종구(마티아) | 병어네거리 4번 출구
전 대구의료원 원장 | Tel. 053)755-7775
www.ldkclinic.com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성요셉요양병원
(구, 농공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고해·병자성사, 봉성체, 병실순회 기도
치매·중풍·노인성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24시간 전문간병인·의사·간호사 상주 진료
친환경적 병실 운영, 양·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JINSUNG **진 성 건 축**
Architects & Interior
건축사·인테리어 사무소
건축설계/인테리어/전원주택
성 호 근(다니엘)
대표/건축사 이 중 배(안드레아)
효동동 효동초등학교 입구
T.017.242.7927, 053)952-7927

www.appleuro.com
에플비노기과
비노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원장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병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